

산업보건, 근로자·경영자 모두 새롭게 생각할 때이다.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문형남

1. 들어가며

건강을 소중하지 않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언제 우리가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한 때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 격변과 불안의 시대에 근로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기업이 유지·발전하려면, 그 어느때 보다 산업보건에 관하여 더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때이다.

2. 고용과 근로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가 이제는 입버릇처럼 되뇌일 수 있게 되었듯이 세계화시대이고, 세계화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IMF관리경제를 통하여 절실하게 느꼈듯이 우리는 선진국과 무한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처절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은 산업구조의 급변·정보기술발전의 급속화를 촉진하게 되고, 기업경영과 생산조직에 있어서는 고용양태의 다양화·근로형태의 변형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게 된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근로자는 일정한 기능이 있으면 상당히 오랜기간 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근로자는 “평생직장”이라는 단어에, 가슴든든하게 일터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기능의 습득과 능력발전을 요청하고 있으며, 작업과 배치전환이 빈번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근로자가 건강한 몸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망하고 고용은 보장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근로”가 법제화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파견제 근로”가 법제화 되는 등 고용양태가 다양화 되고, 고실업·장기실직이 일상 단어화 되는 시대에, “평생직장”이라는 방패가 박물관으

**근로자의 건강은 우선 본인과 그 가정의 행복의 기본요소라고 하겠지만,
기업경영측면에서 보면 원활한 산업생산과 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산업보건은 근로자 자신과 그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경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관리해 나가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한 가슴으로 매일매일 출근하여 일하고 있다.

조립산업시대에는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일하고·쉬고·퇴근하는 소위 근로생활의 리듬이 그런데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탄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속속 산업현장에 도입되어 라이프사이클이 수시로 변하고, 따라서 근로생활의 리듬은 깨어지기 쉬워 근로자의 건강은 위협받게 되어 있다.

3. 98년도 직업병 발생현황과 원인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기 시작한 작년도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직업병에 이환된 근로자 수가 1,288명인데, 그 원인을 보면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이 33.9%(436명)로 가장 많다. 그리고 이 숫자는 97년의 직업병 이환자수(1,424명)의 24.1%(343명)보다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또 작년도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2,212명) 중 가장 많은 28%(625명)가 개인질병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렇게 급증한 수치는 바로 이 시대에 산업보건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속달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산업보건을 위한 노사의 합심노력

근로자의 건강은 우선 본인과 그 가정의 행복의 기본요소라고 하겠지만, 기업경영측면에서 보면 원활한 산업생산과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산업보건은 근로자 자신과 그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경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관리해 나가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우선 근로자 자신이 스스로 관심과 투자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산업사회에서 퇴출 당하게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자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건강해야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지속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자신의 고용을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건강관리를 일상화 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러한 자신의 일상건강관리 이외에도 근로환경에서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는가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작업환경이 청결한가, 취급하는 물질이 유해위험한가, 그리고 그 노출기준은 지켜지고 있는가, 그 물질에 대한 정보가 자신에게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등에 관하여 관찰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수단인 것이다.

경영자는 근로자가 근로생활에서 직업병에 이환되어 그 책임과 손실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인적자원이 무한경쟁에서 이기는 필수자본이므로 인적자원의 보호와 능력발전을 통하여 기업을 유지·발전시킨다는 확고한 경영의식을 기초로 산업보건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물론 초보적인 유해위험물질 관리나 작업환경의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건강한 근로자라야 더 좋은 상품·더 나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경영자는 근로자의 일상적 건강관리까지 유도하고 지원해 준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산업보건관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의 보건관리에 근로자를 참여시켜 나가는 것이 현장 산업보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도 훨씬 올라갈 것이다.

5. 맺으며

“돈을 잃으면 조금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도 오직 신체를 자본으로 근로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다. 더구나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역사책으로 사라지고, 정신이 얼얼할 정도로 사회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는 건강의 비중이 훨씬 더 무겁게 그리고 절실하게 우리에게 느껴진다.

무한경쟁시대의 고용불안과 가변적인 근로생활은 그 어느때보다 근로자의 건강을 더 위협하게 되었고, 기업경영에서는 근로자의 인적자원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 되므로 기업경영에 있어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관심과 투자의 비중을 훨씬 높여 나가야 한다.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남고 앞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근로자가 앞장서고,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나서면, 건강한 근로자·건강한 기업, 그래서 발전하는 우리 산업사회가 훨씬 앞당겨지리라 확신한다.